

광주교육청 학생 수 예측 실패... 학생만 피해

수원지구 과밀학급 심각... "쉬는 시간 화장실도 못가"

'학군 이사' 여파... 주월초 리모델링 1년 만에 또 증축?

전학 권하는 효천중... 일반계고 진학 불이익 우려도

김민중(광산 4·국민의당) 광주시위원은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위한 수용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지 못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교육청이 애초 수원지구 택지 조성 당시 세워졌던 17개 학교 설립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과밀학급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빛나간 학생 수 예측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는 수원지구 뿐 아니다. 광주 교육청의 빛나간 예측으로 교실이 남아돌거나 모자란 학교 실태를 둘러봤다.

◇ 텅 빈 학교... 전학 권하기도 = 광주 남구 효천중 3학년 학생들은 모두 5명이다. 지난해 3월 개교 당시만 해도 3명 뿐이었다.

학교측은 2학기가 되면 이들 학생들에게 전학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칫 일반계고 진학이 어려워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신성적을 토대로 광주시교육청의 올해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선은 94.03% 이

기준대로라면 5명의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백분율로 나눠 94.03% 이하는 일반계고 진학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게 학교 설명이다.

학교측은 지난해도 이같은 불이익을 우려, 학생 한 명을 전학보냈다. 한 명은 특수 목적고로 진학하면서 올 2월 2명을 졸업시킬 수 있었다.

나머지 1~2학년 학생들도 137명으로 학교 설립이 논의될 때 예측했던 학생 수(355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광주시교육청이 3년 전인 2013년 시의회에 제출했던 '효천중 설립 동의안'에는 2017년 학생 수를 355명, 2018년 55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학교측은 그러나 내년 학년 당 3학급씩 갖춰질 경우에도 예측 학생 수(2018년 553명)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학교 학군이 정해져 있음에도 전학을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교육 당국이 학생 수를 제대로 예측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0분 동안 화장실도 못가 = 교육청의 치밀하지 못한 수용 계획 때문에 학생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회 지적이다.

시의회 의원들은 수원지구 내 학교 설립과 관련, "교육청은 수원지구 택지 조성 당시 17개 학교 설립 계획이 세워져 있었음에도 학생 수 감소를 예상, 14개 학교만 설립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현재 심각한 과밀학급 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유재신 전 의원은 2010년부터 관련 문제를 지적했고 김민중 의원도 최근 같은 문제를 언급했었다.

당장, 수원초교의 경우 2008년 30학급에서 현재 51학급(1775명)으로 늘었다. 학생이 늘면서 두 차례 증축에도, 정자 화장실은 증가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수원초교 화장실 면적은 708.47㎡, 48학급 규모의 화장실 기준 면적(728.88㎡)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부족한 화장실 때문에 길게 줄을 서거나 쉬는 시간 10분간 제 때 볼일을 못보고 수업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더 이상 증축하는 것도 불가능해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만호초도 비슷하다. 45학급(1066명) 규모임에도 화장실 면적(596.16㎡)은 기준

(728.88㎡)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큰별초도 47학급(1396명)에 맞는 기준(728.88㎡)을 갖추려면 현재 보유 면적(517.59㎡)보다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더 이상 증축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 어떻게 예측했길래... 리모델링 개교 1년 만에 증축? = 광주 남구 주월초는 지난해 3월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건설 공사로 인해 휴교했다가 3년여만에 36학급 규모로 재개교했다.

주월초는 개교 1년 만에 38학급(925명) 규모로 증축한 뒤 또 최대 44학급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별교실(다목적실·상담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 만큼 더 이상 남아있는 교실도 없고 현재 상황으로는 과밀학급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청 판단이다.

인근 선호도가 높은 사립중·고교 진학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학부모들 사이에 돌면서 '학군 이사' 수요가 늘었다는 게 교육청 판단이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1년 만의 증축 공사는 치밀하지 못한 수요 예측의 전횡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인근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학생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건국초 ▲한울초 ▲각화초에 대한 증축 공사를 하반기부터 진행키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스마트폰 없는 2박 3일' 프로그램에 참여해 스크린 대신 친구와 얼굴을 보며 얘기하고 손가락 대신, 몸을 움직여 재미를 찾는 학생들. <광주시교육청 제공>

스마트폰 없는 2박 3일... "어, 쉽네?"

광주시교육청 초등생 캠프

주부 A(43)씨는 중학생이 된 아들 생각만 하면 속이 타진다. 온종일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다. 식사 시간에도, 걸어 다니면서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기 일쑤고 TV를 보는 동시에 스마트폰을 하는 '멀티플레이어'도 마다않는다. 즐겨 읽던 책은 꺼낼 생각도 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빼앗겠다, 부수겠다'고 으박질러도 그 때 뿐 나아지지 않았다. 어떻게하면 어린 학생들이 스마트폰·인터넷 등으로 둘러싸인 생활 속에서 균형형을 찾을 수 있을까.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미디어 휴(休) 캠프'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다. 건강한 스마트 기기 이용

습관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도전해보고 싶다는 초등 학교 4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폰과 인터넷 없이 2박 3일'을 지내며 그 변화를 체험해보는데 초점을 맞췄다.

영상이나 문자가 아닌,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고 디지털기기로 빈둥거리는 대신, 몸을 움직이며 캔들을 만들고 마술체험과 보드게임을 하며 재미를 찾도록 했다.

학생들 대부분은 전자과 소음을 끈 덕분에 더 여유로워지고 휴식을 취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광주시교육청은 10월에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인터넷 없이 지내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강대 22개 동아리 창업 아이디어 열전

창업경진대회 성료

동강대가 학생들의 창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부쳤다.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 아카데미를 만들고 창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아이디어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공을 들이고 있어서다.

최근 학교 창업지원단 주최로 열린 '2017년 대학생 창업경진대회'도 이같은 의미가 담긴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3년 째 열리는 대회에는 모두 22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작두공을 활용한 두피 클렌저 제품(뷰티마음학과) ▲핵심간호술기 어플

리케이션(간호학과) 등 6개 학과가 낸 아이디어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학교측은 작두공을 활용한 제품의 경우 화학성분을 최소화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데다, 모바일 뿐 아니라 두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 광주·전남 재배 면적이 많다는 점에 주목,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했다. 학교측은 아이디어 개발비,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철 단장은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창업가를 키워내는 창업사관학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동초교 충효분교 학생들이 지난 16일 학교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가뭄 때 농부 마음 알 것 같아요"

광주동초교 충효분교 농사 체험

광주동초교 충효분교 학생들은 '벼는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매년 봄이면 학교 논(1만

9050㎡)에서 모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논농사를 체험하면서다.

충효분교 모심기 행사는 전통 방식대로 직접 못줄을 잡아가며 모를 심는다. 지난 2013년 시작한 이후 올해로 다섯번째

다. 올해 모내기 체험행사는 지난 16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학교 논에서 열렸다. 1학년 학생 6명을 포함해 전교생 38명이 참여했다. 모심기 뿐 아니다. 학생들은 매년 친환경 농법용 우렁이도 방사하게 된다. 가을이 알차게 여문 벼를 거둬들이는 가을걷이 체험도 한다. 풀베기, 맥메치기 등 다양한 농사 체험 활동도 빠뜨리지 않

는다. 5~6학년 학생들의 경우 올해로 다섯번째 논농사에 나선 셈으로, "올해도 풍년일거야"라는 말을 하며 웃을 정도다. 농부에 대한 고마움과 쌀의 소중함도 모를 리 없다. 자연생태체험과 인성교육이 이뤄지면서 13명(2013년)이던 학생 수는 2015년 28명, 2016년 45명 등으로 늘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